

이 숙 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2세 영아의 실외놀이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200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이 주 은

논문개요

본 연구는 2세 영아의 실외놀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K어린이집의 2세 영아(남아 7명, 여아 2명)를 대상으로 2004년 3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비 오는 날과 황사인 날을 제외하고 오전과 오후에 이루어지는 실외놀이를 집중적으로 참여 관찰하였다. 관찰을 통해 얻은 현장노트와 의미 있는 상황의 사진, 부모면담, 기타 연구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현장 노트의 사례를 유형별로 부호와 하고 관련문헌과 유아교육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주제는 첫째, 실외놀이에 대한 영아들의 흥미, 둘째, 실외놀이터에서 놀이감 선택, 셋째, 실외놀이터에서의 탐색과 놀이, 넷째, 자연은 영아들의 놀이터, 다섯째, 실외놀이에서 또래와의 협동 여섯째, 실외놀이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해결 일곱째, 실외놀이를 통한 변화였다.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들은 실외놀이를 매우 좋아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하였다. 영아들은 실외놀이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빨리 정리하는 모습과 원하는 놀이감을 가지고 놀이하기 위해 “신발을 빨리 신고 달리기”와 같이 스스로의 기본생활습관을 단련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둘째 실외놀이시 2세 영아들은 놀이기구의 선택에 있어 자동차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셋째 그네, 미끄럼틀, 모래놀이 등의 놀이영역에서 영아들은 다양한 놀이

기술과 스스로에게 재미있는 방법을 찾아 놀이를 하였다.

넷째 실외놀이를 하면서 2세 영아들은 자율성과 의존성의 양면적인 특성을 보였다. 실외놀이를 하면서 영아들은 자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발휘하고자 스스로의 방식대로 놀이기구를 사용하였으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의존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섯째 실외놀이기구에는 함께 놀이하는 놀이기구와 실외환경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영아들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2세 영아들은 실외놀이에서 자연물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놀이에 적절히 이용하였으며 동물에 대하여는 호기심과 두려움을 나타내었다.

2세 영아들은 자연물인 잔디경사를 이용하여 미끄럼틀도 타고 나무와 꽃 뒤에 숨어 숨박꼭질도 하였으며 들꽃과 돌맹이를 이용하여 소꿉놀이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다. 2세 영아들은 벌레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벌레를 찾았으나 벌레를 무서워하여 피하거나 죽이려 하였다.

일곱째 실외놀이를 하며 2세 남자영아들은 거친 신체 놀이를 하였다.

여덟째 영아들은 실외놀이를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였다.

아홉째 실외놀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놀이기구의 선택과 놀이감 때문에 일어났으며 그 해결에 있어서는 보상을 제공하거나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동을 보였다.

열째 실외놀이를 통해 영아들은 운동기술의 향상과 나누기 협동하기 등의 친사회적 행동이 보다 많이 발견되었으며 동식물을 가까이 접하면서 생물에 대한 소중함을 배워갔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동기	3
II. 이론적 배경	5
1. 2세 영아의 놀이	5
2. 실외놀이의 중요성	7
3. 실외놀이 환경	9
4. 선행연구	13
III. 연구방법	16
1. 연구대상	16
2.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19
IV. 결과 및 해석	21
1. 2세 영아들의 흥미	21
2. 실외놀이터에서의 놀이감의 선택	24
3. 실외놀이터에서의 놀이	29
4. 자연은 놀이터	33
5. 또래와의 협동	42

6. 실외놀이터에서의 갈등과 해결	45
7. 실외놀이를 통한 변화	51
V. 논의 및 결론	55
1. 논의 및 결론	55
2. 제 언	60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 1 > 사랑반 영아들	16
<표 - 2 > 사랑반의 하루 일과	18

사 진 목 차

< 사 진 > K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모습	17
-------------------------------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아에게 있어 실외놀이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준다. 영아는 실외놀이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알아가며 스스로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다양한 상황을 경험한다.

실외놀이 경험은 영아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Wellhousen, 2002). 실외에서 영아들은 걷고 뛰며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는 것을 배우고 (Humphryes, 2000) 실외놀이기구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놀이함으로써 운동 기술과 대소근육을 발달시킨다(이현경, 2003).

신체발달은 영아들의 자율성과 독립심에 기초가 되고 실외환경을 마음껏 탐색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다양한 놀이에 참여하여 또래와 함께 활동하며 상호작용이 활발해 지고(정은경, 1999) 이는 언어적인 발달과 사회적인 기술을 증진시킨다. 실외놀이에서는 실내에서보다 갈등이 많이 일어나지만(이화정, 1999) 갈등의 해결 과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우현경, 1996 재인용).

실외놀이는 영아들에게 햇빛, 바람, 소리, 냄새, 동물, 식물 등 자연적인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Frost, 1997). 이러한 자연과의 만남은 영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준다. Wilson(1996)은 영아들이 자연에 대한 독특한 친밀감과 감정 이입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느끼는 신기함은 창조성과 상상력의 기반이라고 하였다. 자연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또래간의 협동심을 길러

주며 밤과 낮, 날씨 및 사계절의 변화도 가르쳐 준다(임재택 외, 1999).

이렇듯 실외놀이의 가치와 물리적 환경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실외 놀이와 실내놀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실외놀이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Henniger, 1985 ; Shin, 1994 ; 심숙영, 1997 ; 선애순, 2003).

또한 실외놀이터의 질적인 수준에 따른 유아의 놀이행동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며(류진순, 2003 ; 성병훈, 2003 ; 이봉선, 1998 ; 신동주, 1997 ; 노현주, 1995) 실외놀이 시설의 선호도와 놀이행동을 연구하였다(Winter, 1983 ; 이화정, 1999). 지금까지의 실외놀이에 대한 연구는 인지적 놀이유형과 사회적 놀이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실외놀이기구에서 무슨 놀이행동이 나타나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있으나 놀이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외놀이에 대한 질적인 연구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놀이행동에 관한 질적인 연구(이숙재, 1994)와 실외놀이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정은경, 1999)가 있다. 정은경(1999)의 연구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외에서 일어나는 유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상상놀이의 소재와 그 전개과정을 통해 놀이가 지닌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실외놀이 연구에는 이현경(2003)의 걸음마기 영아를 위한 실외놀이 프로그램 개발이 있다.

이상의 실외놀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만 3, 4, 5 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2세 영아의 실외놀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세 영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실외놀이를 관찰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연구 동기

본 연구자는 교사생활을 하면서 실외놀이는 실내 수업 활동의 전환을 위한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외놀이에 대한 가치도 간과하고 있었다. 실외놀이를 하면서도 안전에 신경을 쓰느라 상호작용과 놀이의 참여를 많이 하지 못했다.

또한 본 교사에게 부모들은 아이가 감기가 걸릴까 걱정이 된다며 종종 바깥놀이를 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실외놀이를 자주 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바깥놀이와 관련하여 여러 교사들과 토론할 기회가 생겼다. 그들은 저마다 불만을 토로하였다. 어떤 교사는 부모가 아이의 옷이 더러워지는 것에 민감하여 모래놀이와 미끄럼을 탈 때 아이에게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며 주의를 준다고 했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교장선생님께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안전사고가 염려된다며 유아들의 실외놀이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말이 자제지 금지나 다름없다고 했다.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외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부분과 실외놀이의 가치에 대해 간과했던 점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독일의 자연주의 교육과 일본의 실외놀이 교육에 대한 강연을 접하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숲 속에 유치원이 있어 아이들이 자연을 마음껏 접하고 감각적으로 탐색하며 호기심과 창조성을 발달 시켜 나아갈 수 있다(Walker, 2003)고 하고 자연을 접하고 자란 아이들이 자연을 지키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자연주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영아들은

늘 호기심에 가득 차서 이곳 저곳을 다니며 만지고 장난치고 하였는데 그것을 제지한 사람이 교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고도성장으로 발전된 도시에서 풍요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의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Yasuhiro(2003)교수는 실외놀이의 본질에 대해 묻고 프리벨이 유치원을 킨더 가르텐이라 하였는데 이는 어린이의 정원을 뜻하며 이름대로 정원에서의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정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값비싼 먹거리와 옷, 세계 유명회사의 장난감을 사주고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교사 또한 실외에서의 놀이활동보다 실내에서 수업활동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올해 본 교사는 2 살 반인 사랑반 담임을 맡게 되었다. 지난해 1세 반인 튼튼반에서 담임을 하며 함께 지낸 영아들이다. 2살이 되어 영아들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더 이상 기저귀를 차지 않고, 말도 많이 늘고 호기심도 더 많아져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왜요? 이거 뭐예요?)는 것이다. 사랑반 영아들은 교실에서 벽돌블록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그 위에 타고 운전하는 놀이를 한다. 그러나 실내에서 놀이는 움직임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 반 영아들과 함께 실외놀이를 하면서 자동차도 타고 잔디밭과 동산을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고 접할 기회를 많이 가지려 한다. 이를 통해 실외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영아들과 함께 하고 이를 기초로 영아들의 실외놀이 활동에 대한 흥미와 실외놀이의 특징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2세 영아의 놀이

영아들은 탐색과 놀이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배우고 예측하게 된다.

2세 영아는 환경을 오감을 가지고 탐색한다. 감각을 통한 탐색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에 관한 개념을 발달시키고 스스로의 한계를 알기 시작한다. 영아기 놀이의 역할과 중요성은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와 교육학자 교사의 관심이 되어왔고 이는 놀이가 다른 발달 영역 예를 들어 신체발달, 사회·정서발달, 언어발달, 인지발달의 영역들과 밀접하게 관련 맺고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한다(Eisert & Lamorey, 1996).

2세 영아의 놀이를 발달 영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세 영아는 1세 때보다 신체의 움직임이 안정되어 층계 오르내리기를 할 수 있으며 흔들목마타기, 공 던지고 받기를 좋아하며 끌고 다니는 놀이감도 좋아한다(이숙재, 1997 ; 이영자, 이기숙, 1993).

2세 영아는 눈과 손의 협응 능력과 함께 소근육 발달로 블록 쌓기 놀이와 간단한 모양을 끼워 맞추는 놀이를 할 수 있다.

2세 영아는 공포와 분노, 애정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독립심의 증가로 자주 부정과 반항을 표시한다. 영아들은 현실에서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놀이를 통해 표현한다(Wilson, 1986).

2세 영아는 자기중심적이지만 때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한다. 때로는 순서를 기다리기도 하며 함께 나눌 수도 있고 또래와 협동하여 놀이를 할 수도 있다.

2세 말경에 이르면 다른 유아들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지만 놀이감을 놓고 싸우는 형태가 많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동을 많이 보인다. 또한 놀이감을 가지고 자주 싸우며 신체적인 싸움을 많이 한다(Wilson, 1986).

2세 말경에는 협동놀이의 빈도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더 많아지며 사회적 기술도 발달하게 된다. Sroufe(1979)는 2세시기는 자아개념과 동일시의 형성시기로 자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개념이 발달하고 환상과 놀이에서 성인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해결한다(이영자, 이기숙, 1993 재인용).

이 시기에는 성역할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여 주변 성인의 성역할을 모방하는 놀이를 한다(강문희 외, 1999).

2세 영아는 언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사물의 이름을 말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놀이의 폭과 즐거움이 급증하게 된다.(윤주화, 1999) 2세 영아는 실제 어떤 것이 있지 않아도 정신적 이미지나 단어 등을 사용하는 상징적 표상이 발달하게 된다(Schickedanze, 1990).

2세 영아는 piaget(1965)의 인지발달단계에서 전조작기 전개념적 단계에 속한다. 이 시기에는 상징적 표상이 가능함에 따라 가상놀이 상징놀이가 발달한다. 2세 영아는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여 사고하기 시작하고, 기억하기 시작하며,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장영희, 2000). 2세 영아는 일상생활을 재연하는 역할 놀이를 할 수 있게 되고 2세 말경이 되면 구체적인 사물이 제시되지 않아도 상상놀이가 가능하게 된다(이숙재, 1997 ; Fenson, 1986).

2 . 실외놀이의 중요성

실외놀이는 실외 놀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들의 놀이 활동이며, 바깥놀이라고도 불린다. 실외 환경은 공간적으로 실내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영유아에게 독특한 놀이경험을 제공하고(이숙재, 1997)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적인 공간으로 영유아의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와준다고 하였다(이기숙, 1985).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놀이는 영아들이 넘어지고 부딪치며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고(Humphryes, 2000) 운동기술을 향상시키며, 대근육과 소근육 발달을 돕는다(조경희, 1999 ; Henninger, 1985).

Sutton-Smiths(1990)는 실외놀이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탐구, 실험, 구성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제안했다. Tizard, Philps 와 Plewis(1976)는 실외놀이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실내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나타낸다고 하고, 실외놀이활동은 영유아교육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정은경, 1999 재인용).

박진영(2003)은 실외놀이 경험은 영아들로 하여금 실내공간에서의 억압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해내고 안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실외놀이는 감각적 탐색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는 영아들에게 계단을 오르고 뛰며 걷고 넘어지면서 다양한 운동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해준다(이현경, 2003).

실외놀이는 영아에게 자연을 만나고 접하게 하는 기회가 되므로 영아들의 자연에 대한 사고와 감성을 바르게 만들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수경(2000)은 실외놀이는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학습과 자연의 생

명을 중시하는 윤리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였다. Frost(1997)도 실외에서 햇빛, 바람, 소리, 냄새, 동물, 식물 등 자연적인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실외놀이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새세대육영회, 1987).

첫째, 실외놀이 활동은 태양과 맑은 공기를 접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 증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유아들은 실외놀이 공간에서 활동하는 동안 맑은 공기를 호흡하게 되고 햇빛을 받게 되어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도 만들게 된다. 또한 실외에서의 활발한 신체적 활동은 신체기능의 필수적인 과정을 자극하여 혈액순환, 호흡작용, 배설작용 등을 돕는다.

둘째, 실외놀이 활동을 통해 운동 기술의 발달과 같은 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진다. 신체적 운동은 신체 발달과 건강에 필수적이다. 운동에 대한 습관이 생의 초기에 형성되고 그 잠재적 능력이 일생을 걸쳐 발달하게 된다. 운동 기술의 발달은 실외놀이 활동 중 아주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실외놀이 활동은 개인적인 신체적 움직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 실외놀이 활동은 실내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사고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긴장으로부터 유아가 이완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외 놀이시는 실내 놀이시보다 영유아가 제한을 덜 받으며, 자유롭게 뛰어 놀고, 소리치고, 노래하며,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족시키면서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또한 공던지기, 펀치백 때리기, 못박기, 달리기 등의 활동을 통해 부정적 감정과 적개심을 제거하고 울적한 감정을 해소하게 된다.

넷째, 영유아들은 실외놀이 공간에 있는 여러 시설과 설비를 선택하여 놀이를 하는 가운데 서로 교대하기, 협력하기, 나누기, 함께 계획하기 등의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킨다.

다섯째, 실외놀이 활동은 영유아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하여 자연세계에 대한 물리적 지식을 얻게 함으로써 지적발달을 돕는다. 영유아는 실외에서 많은 관찰을 할 수 있다. 계절과 기후의 변화에 따른 실외 자연 환경의 차이, 동물의 변화, 식물 기르기, 동물 기르기를 통한 성장의 변화 등 영유아가 관찰 할 수 있는 것은 많다. 그들은 이렇게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결론을 낼 수 있다.

여섯째, 실외놀이 영역에서 영유아들의 창의성, 개념, 지각, 기억을 자극하는 상상적 게임, 극화놀이 활동이 일어난다. 자신들이 창안한 극화 활동을 통해서 영유아들은 성인의 역할 및 사회적 세계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발달시킨다. 역할에 대해 갖고 있는 영유아의 지식, 놀이에 사용될 수 있는 소품들은 영유아의 놀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3 . 2세 영아를 위한 실외놀이 환경구성

1) 물리적 환경

실외환경은 실내에서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활동과 경험(자연관찰, 동·식물의 사육과 재배, 활발한 신체운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실내 활동을 실외활동으로 연장시키거나 확장(미술활동, 음률활동, 과학활동, 게임, 대근육활동 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유아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해서 실외환경은 실내 환경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실외환경의 구성시 고려사항으로 Decker와 Decker(1976)는 다음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실외환경은 실내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미술, 음악, 독서, 과학 활동 등 많은 활동 등은 실외놀이로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밖에 관찰, 실험, 신체활동, 게임, 견학 등의 자발적인 활동과 계획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실외활동시간을 생각하고 실내활동을 늘리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원리에 상충하는 것이다. 실외활동은 그냥 노는 것,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인식된 전통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둘째로, 실외환경은 영유아들에게 심미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실외환경은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맡고, 맛보는 등 시각적, 감각적 느낌과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크고 작은 나무와 여러 종류의 돌, 흙, 잔디, 모래, 시멘트 등이 적절히 안배된 바닥, 편편하거나 높거나 낮은 곳, 각종 동·식물 등 자연적인 사물이나 현상이 조화를 이룬 듯한 심미적인 느낌을 주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

셋째로, 실외환경은 영유아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실외환경은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하여 울타리, 시설설비의 적절한 배치, 적절한 바닥 처리 및 충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미끄럼틀은 높은 안전대가 필요하며, 언덕이나 흙무덤에 세워진 것이 가장 안전하다. 휘두르는 활동은 한적한 곳에 설치하고, 올라가는 놀이기구 밑에는 반드시 모래, 톱밥을 깔아야 한다.

또한 그네 터 주변에는 그네의 흐름을 고려하여 관목 등으로 막아주고 옆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두 쌍씩 짝지어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Frost는 실외놀이 환경 구성할 때 필요한 원리(1992)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바퀴 있는 탈 것이 다니는 길이 있고, 바깥의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등 움직임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며 2세 영아들의 도전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언덕, 터널 등의 다양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둘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움직여 보는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환경이어야 한다. 부드러운 음악, 빛과 그림자, 여러 가지 모양과 촉감을 가진 다양한 사물들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만나는 것마다 호기심을 보이는 2세 영아들에게 신기함, 다양성, 도전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2세 영아들은 거꾸로 미끄럼틀을 하는 등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기도 하는데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또 영아들의 다양한 놀이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넷째,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

Watson과 Watson, Wilson(1999)은 2세 영아들의 대근육 발달과 관련하여 높은 이동적 욕구를 위하여, 자전거, 탈 수 있는 놀이감, 자동차, 트럭, 유모차, 공 등을 마련해 놓을 것을 제안하였다.

2) 사회적 환경

영아들의 실외놀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연관이 있다. 그 중에서도 성인의 영향이 중요한데 특히 교사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실제로 교사들은 실외놀이에서 유아들의 놀이에 자연스럽게 개입하여 신체 생리적 요구에 부응해주는 보호적 역할을 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봉선, 이숙재, 1999)

교사들은 영아들이 신뢰감을 형성하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이은혜 외, 1995)

또한 교사는 영아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아의 호기심을 격려하며 능동적인 활동을 도와주어야 한다(Watson, Wilson, 1999).

영아 교사는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Wittmer, 1997) 교사와 영아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인식하고(이현경, 2003) 영아와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여야 한다(곽승주, 2003).

교사는 영아의 안전한 실외놀이를 위해 환경을 정비하고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Wellhousen, 2003).

이기숙, 이영자(1993)는 2세 교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영아들의 신체적, 언어적, 사회 정서적 발달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와 양육의 역할을 제공해야 한다. 이 시기는 정서적 안정감이 중요한 시기이며 양육과 보호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교사는 영아 개개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영아가 가정과 같은 안정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다. 셋째, 영아의 지적 능력을 길러 주고 애정적, 반응적,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 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2세 영아들을 위한 교사는 유아들을 위한 교사보다 더 애정적이고 반응적이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 주어야 한다. 영아는 항상 자신과 이야기하고 놀아주고 도와주고 돌볼 수 있는 성인을 필요로 하므로 긴급한 요구 사항이 생겼을 때 교사는 영아에게 빨리 반응해 주어야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결을 위해 창의력과 직관력을 사용해야 한다 (Wilson, 1986 ; Honig, 1993).

넷째, 교사는 바람직한 모델링을 제시하는 동일시 대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사는 자기 신뢰적인 태도로써 늘 행복한 모습으로 영아를 도와주며 협력적인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영아에게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을 기르고 서로 협력하여 놀이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는 부모와 공동으로 영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부모 참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섯째, 교사는 영아의 발달, 환경 및 활동 전반에 걸쳐 항상 관찰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영아의 발달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므로 영아들의 요구와 발달수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관찰 및 평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김혜경 외, 2003).

이러한 역할과 함께 실외놀이에 대한 교사의 생각은 놀이에 영향을 준다. 실외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실외놀이의 기회의 증진과 내용의 활발함에 기여할 수 있다.

4. 선행연구

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놀이에 관한 선행 연구에는 상상놀이와 상징놀이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혜영(1999)의 1,2세 상징놀이 발달에 관한 연구, 이지향(2003)의 만 2세 유아의 상상놀이에 관한 연구, 조혜경(2003)의 영아의 상징놀이 발달에 관한 구성요소별 분석 연구 등이 있다.

임혜영(1999)은 1,2세 영아의 놀이 행동을 관찰하여 영아의 상징놀이 행동 유형의 지속시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세에 비해 2세가 상징놀이 시간이 길었으며 교사의 개입이 있을 때 좀 더 다양한 상징놀이가 나타났다고 하고 2세 영아의 다양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조혜경(2003)은 17개월에서 37개월까지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월령의 증가

에 따라 상징놀이의 빈도와 주제 상징놀이 구성요소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월령이 증가할수록 상징놀이가 증가하였으며, 구성요소별 발달도 수준이 높아졌으며 질적으로도 다른 양상을 보였음에 주목하고 몇 달간의 월령 차이에도 상징놀이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지향(2003)은 성에 따른 만 2세 유아의 상상놀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주제, 가작화 요소, 상상놀이유형, 상상놀이가 일어난 장소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만 2세 유아의 상상놀이와 교사참여에서 교사참여 유형과 상상놀이의 특성들이 교사참여로 인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만 2세 유아의 상상놀이는 주제에 있어 남아는 교통놀이를 여아는 가정놀이를 주로 하였으며 실물과 유사한 사물을 상징놀이에 사용하며 자신을 가작화 하고. 혼자놀이를 많이 하나 교사의 개입시 협동상징놀이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2세 영아의 실외놀이에 관한 연구에는 Winter(1983)의 걸음마기 영아의 실외놀이기구 선택과 놀이행동에 관한 연구가 있다. Winter(1983)는 실외놀이행동을 Parten의 사회놀이 범주와 Similansky의 인지놀이 범주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걸음마기 영아의 놀이는 모든 범주에서 다양하게 보여졌으나 혼자놀이와 기능놀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에 주목하고 이를 발달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설명했다. 놀이기구의 선택에 있어서는 또래 주변의 놀이기구를 선택하여 놀이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놀이기구의 선택에 있어 성차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국내에는 이현경(2003)의 걸음마기 영아를 대상으로 한 실외놀이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있다. 1년을 적응기, 활동기, 성숙기, 발전기로 나누어 각각의 기간에 적합한 실외놀이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기관의 실외놀이 활동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2세 영아의 실외놀이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실외놀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외놀이기구에 대한 선호도와 각 놀이시설에서 나타난 연령별 놀이유형에 관하여 조사한 이화정(1999)은 만 3, 4, 5 세 유아들의 놀이기구의 선택에 있어서 차이는 유아들의 발달에 따라 선호하는 놀이기구가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각각의 놀이기구에 따라 연령간 차이는 없었으나 놀이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정은경(1999)은 질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상상놀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은경(1999)은 실외에서 보다 결속력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상상놀이 주제와 자유로운 상상의 경험을 제공된다고 하고 유아들의 융통성, 주도성, 독립성과 확산적 사고의 수용을 위해 실외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k 어린이집의 사랑반에 재원중인 25개월 ~ 33개월 영아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랑반은 남아 7명과 여아 2명 (25개월 남아 2명, 26개월 남아 1명, 29개월 남아 1명, 30개월 남아 1명, 32개월 여아 1명, 남아 1명, 33개월 여아 1명 남아 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대상영아의 부모들은 모두 맞벌이 부부이며 어린이집에 오기 전에 조부모의 양육을 받았다. 연구대상 어린이집의 주변환경은 우거진 숲과 나무, 동산에는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고, 건물은 남향의 1층 단독 건물이며, 4개 반(2세 미만 반 2반, 2세 반 1반, 3세 이상 반 1반)30명의 원아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는 원장선생님을 비롯한 각 반 담임교사가 1명이었으며 늦게 낚는 아이들을 위한 교사가 있었다. 어린이집의 공간 구성은 4개의 교실과 주방, 원장실, 교사실로 되어 있다. 평일 일과 운영은 오전 7시 등원하여 오후 6시까지 귀가하며 늦게 근무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11시까지 운영을 하였다. 등원 및 귀가는 부모와 함께 개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다.

< 표 - 1 > 사랑반 영아들 (2세)

이 름	성 별	생 년 월 일
정 의 준	남	2002년 1 월 18일
최 은 찬	남	2002년 1 월 9일
변 원 석	남	2001년 12월 4일
김 해 인	남	2001년 9 월 19일
이 회 준	남	2001년 7 월 27일
백 승 준	남	2001년 6 월 14일
오 승 은	여	2001년 6 월 8일
임 현 우	남	2001년 5 월 26일
신 민 경	여	2001년 5 월 14일



< 사진 - 1> K 어린이 집의 실외놀이터 모습

K 어린이집의 실외놀이터에는 큰 미끄럼틀, 작은 미끄럼틀, U자형 그네 2개, 모래밭과 모래놀이를 위한 소품들 (모래용 삽, 체, 소형차, 트럭, 기차, 버스, 비행기. 여러 크기와 모양의 그릇, 물뿌리개, 숟가락, 갈퀴)과 벤치와 식탁, 소꿉집, 흔들말 1개, 시소 1개, 끝차 1개, 주유기, 자동차 4개, 자전거 4개, 쌍쌍이 2개의 시설물이 갖추어져 있고, 어린이집 옆 동산에는 잔디가 깔려져 있고, 주변에는 모과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철쭉, 벚꽃등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표 2> 사랑반의 하루 일과

시 간	활 동	활 동 내 용
7 : 00 - 8 : 00	등 원	아침 인사 나누기 개인소지품 정리하기 유아의 건강 및 기분과약
8 : 00 - 8 : 45	자 유 놀 이	
8 : 45 - 9 : 00	정리정돈 및 손씻기	놀잇감 정리정돈하기 손씻기
9 : 00 - 9 : 30	오 전 간 식	맛있게 먹기, 간식그릇 정리하기
9 : 30 - 10 : 00	소 그 룹 활 동	이야기 나누기, 새노래 배우기 과학활동, 음악감상
10 : 00 - 11 : 20	자유 선택 활동 및 바깥놀이	영역별 자유선택활동 어린이집 실외놀이터에서 놀기 산책하기
11 : 20 - 11 : 30	정리 정돈 및 식사준비	놀잇감 정리 정돈 하기 화장실 다녀오기, 손씻기, 점심 식사 준비하기
11 : 30 - 12 : 15	점 심 식 사	맛있게 먹기, 식판 정리하기 화장실 다녀오기, 이닦기
12 : 15 - 14 : 40	낮 잠 시 간	낮잠 준비, 낮잠
14 : 40 - 15 : 00	정 리 정 돈	이불 정리 하기, 손씻기
15 : 00 - 15 : 30	간 식	맛있게 먹기 간식그릇 정리하기
15 : 30 - 16 : 00	소 그 룹 활 동	동화 듣기, 신체활동 미술 활동
16 : 00 - 16 : 40	자유선택활동 및 바깥놀이	영역별 자유선택활동 어린이집 실외놀이터에서 놀기 산책하기
16 : 40 - 17 : 00	귀 가 준 비	개인물건 정리하기 인사나누기
17 : 00 -	비디오 시청 및 귀가	

2.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1) 참여관찰

본 연구는 실외놀이터에서 이루어지는 2세 영아들의 놀이기구의 선택과 놀이, 놀이에서의 갈등과 해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자연스런 일상생활의 참여관찰을 하였다.

Van Manen(1994)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생활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길은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영·유아의 경우 대화식 인터뷰가 어렵기 때문에 참여관찰은 영·유아의 경험에 접근하는 적합한 방법이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4년 3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황사와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 오전과 오후에 이루어지는 실외놀이를 집중적으로 참여관찰 하였다.

연구자는 실외놀이에서 일어나는 사건, 상황이나 환경, 영아들의 모습, 행동, 대화 내용 등을 가능한 빠르고 간략하게 메모하였다. 현장관찰이 끝난 후 그 날 이루어진 사건이나 느낌, 연구 주제에 관련된 생각들, 연구자의 편견, 관찰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일지로 작성하였다.

2) 부모면담

실외놀이의 행위자인 영아들의 관점, 생각, 느낌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아들의 많은 움직임, 매우 짧은 영아들의 대답, 실제와의 혼동여부, 성인들의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등을 감안하여 부모님들께 귀가지도 시에 놀이에서 나타나는 행동, 의문점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부모면담은 실외놀이에서 보여지는 궁금증이나 의문 등에 대해 일상적인 경험을 포괄적으로 대답해 줌으로써 실외놀이 혹은 영아 개개인의 놀이

이해의 범위를 넓혀 주었다.

3) 기타 자료수집 및 사진 촬영

연구주제와 관련지어 내용 분석을 하기 위해 K어린이집의 교육과정 지침서나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연간/월간/주간 계획안, 일과표, 가정 통신문, 일일생활기록일지, 부모상담일지, 가정환경조사서 등을 수집하여 참조하였으며, 연구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상황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사진촬영은 실습생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 졌다.

4) 자료의 타당화와 분석

질적 연구 방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하여 Marriam(1998)이 제시한 집중적인 관찰, 삼각측정법,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심층적 기술, 참조자료(사진 등)의 사용, 연구 국면에 대해 계속 묻고 평가하는 자기 감시과정(정은경,1999,재인용)등의 준거에 초점을 두고 연구 준비기 부터 관찰기간, 분석기간, 보고서 작성기간에 걸쳐 연구전반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자료분석을 위해 먼저 현장 노트(field - note)에 수집된 자료들을 전사(transcription)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 자료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단어나 문장 정황이 지닌 의도와 동기들을 유추하여 해당 사례에 메모해 두고 의문점을 해결하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면담을 가졌으며 유아교육 전문가와 의논하고 관련문헌을 검토하였다 .또한 각 사례들을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유형별로 부호화하여 색인작업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목적은 실외놀이터에서 이루어지는 2세 영아들의 놀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실외놀이터에서 영아들과 함께 하면서 영아들의 놀이와 모습을 관찰하였으며 관찰만으로 얻기 어려운 정보에 대해서는 부모면담, 그 외의 자료들, 유아교육 전문가와의 의논을 통하여 얻고자 하였다.

2세 영아들의 실외놀이를 관찰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외놀이에 대한 영아들의 흥미, 둘째, 실외놀이터에서 놀이감 선택, 셋째, 실외놀이터에서의 탐색과 놀이, 넷째, 자연은 영아들의 놀이터, 다섯째, 실외놀이에서 또래와의 협동, 여섯째, 실외놀이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해결, 일곱째, 실외놀이를 통한 변화였다.

1 . 실외놀이에 대한 영아들의 흥미

정리에 분주한 사랑반 영아들

정은경(1999)은 실외놀이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에서 유아들이 실외놀이를 좋아하며 실외놀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모습, 오랜 시간 실외놀이를 하기 위해 빨리 정리하는 모습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현경(2003)도 영아들의 실외놀이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걸음을 가지고 먼저 뛰어오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랑반 영아들도 실외놀이를 오래하고 싶어서 평소의 정리시간과는 달리 바깥놀이를 하러 나갈 때는 빨리 정리를 하였으며 놀이감을 서로 정리하겠다고 빼앗기도 하였다.

교사 : 애들아 바깥놀이 나가게 정리하세요.

영아들 : 와아~ 바깥놀이한데.

현우 : (모두 제자리 노래를 부르며 벽돌블록 세 개를 두팔로 안아 제자리에 정리한다.)이거봐요

교사 : 현우 벽돌블록 많이 들었네.

희준 : (네 개를 들겠다며 킁킁거리고 가다가 벽돌블록이 무너진다.)에이~

승준 : (노래만 부르는 민경이에게)정리해~ 빨리 나가야 돼

민경 : 승준이 미워~

의준, 은찬 : (레고 자동차를 들고는 서로 자신들이 정리한다고 싸우며)내가 내가

교사 : (레고 자동차와 두 영아의 손을 잡고)우리 같이 하자

애들아 정리 다했어요?

영아들 : 네

교사 : 애들아 정리 다했으면 바깥놀이 나가게 신발 신으세요.(3월 15일)

신발을 빨리 신고 달려라

몇 달 전 까지만 해도 사랑반 영아들 중에는 혼자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았다. 신발을 혼자 신을 수 있다는 것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발을 혼자 신을 수 있는 친구들은 교사가 도와주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먼저 나가서 놀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발을 혼자 신을 수 없는 영아들은 교사가 신겨줄 때까지 기다려야되고 다른 영아들을 신겨주고 있으면 그 영아를 다 신겨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과 그 만큼 멀어진다는 뜻이다. 지금은 사랑반 영아들

모두가 혼자서 신발을 신을 수 있다. 그러니 빨리 신발을 신고 달려야 하는 것이다. 신발을 빨리 신고 달려야 자신이 놀이하고 싶은 장난감을 빨리 찾고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관문을 열면 영아들은 다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빨리 놀이감을 향해 뛰어간다. 특히 빨간 자동차를 향한 남자영아들의 열정은 대단하다.

현우 : (신발을 빨리 신으러 복도를 뛰어간다.)이야~

교사 : 현우야~ 뛰지 않아요. 다쳐요.

희준 : (자신의 발에 큰 누나의 신발을 신고는) 신었어.

현우 : (신발을 다 신고는 현관문 문고리를 잡고는 앞에서 있다.)히히

교사 : 현우야 다른 친구들 신발 신을 때까지 여기 앉아있자.

현우 : (불만에 찬 표정으로)치이~

교사 : (깡깡거리며 혼자 신발을 신는 해인이에게) 선생님이 도와줄까?

해인 : (이상한 소리를 내며)어어어어~ 싫어. 내가 할거야

(온찬이가 늦게 등원을 하며 온찬이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자)

의준 : (신발을 반쯤 걸치고 먼저 나가서 빨간 자동차를 향해 간다.)와아~

교사 : 의준아 신발 제대로 신고 나가야지 넘어져. 들어오세요.(4월 9일)

희준이는 요즘 며칠동안 누나의 신발을 신고 왔다. 바깥놀이하면서 신발도 자주 벗겨지고 넘어지기도 해서 일일생활기록일지를 통해 누나 신발을 신고 오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

희준이가 부쩍 누나 물건에 탐을 내네요 아침에 어린이집에 오려하면 누나 신발을 신고 가겠다고 때를 부려서 어쩔수 없이 신고 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4월 12일 희준이 일일생활기록일지의 내용)

회준이가 실외놀이를 나갈 때 살펴보니 회준이의 신발은 꼭 맞아서 신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누나의 신발은 커서 회준이의 작은 발이 쭈욱 들어가서 빨리 신을 수 있었다. 회준이는 실외놀이에서 자신이 원하는 놀이감을 가지고 놀이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한 것이다.

2. 실외놀이터에서 놀이감 선택

1) 빨간 자동차를 향하여

사랑반 남자영아들은 실외놀이하면서 다른 자동차와 놀이기구가 있음에도 빨간 자동차 타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 다음은 빨간 자동차 타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현우 : (가장 빨리 뛰어가 빨간 자동차에 타며)와아~

회준 : (간발의 차이로 빨간 차에 타지 못하곤 아쉬워하며)나도 빌려줘~

현우 : 안돼, 내가 탈거야~

회준 : (현우를 쫓아다니며)빌려줘

현우 : 싫어

회준 : (포기하고는 옆에 있는 다른 자동차를 탄다.)

의준,해인,원석,은찬,승준 : (아쉬워 하며 다른 자동차와 놀이기구를 찾는다.)

(3월 25일)

왜 빨간 자동차 인가?

다른 자동차가 있음에도 사랑반 남자영아들은 빨간 자동차를 타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남자영아들에게 빨간 자동차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핸들, 아빠 자동차와 닮았으며, 아빠가 될 수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핸들

다른 자동차는 손잡이가 있는데 빨간 자동차에는 핸들이 있다. 핸들이 있다는 것은 방향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후진과 더불어 오른쪽과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바퀴도 같이 방향이 바뀌니 영아들에게 이 움직임이 재미있고, 편리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아빠 자동차와 닮았다.

사랑반 영아들은 빨간 자동차에 타고 놀이하면서 ‘아빠차’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아빠들이 대부분 타고 다니는 승용차와 모양이 닮았고, 이점이 영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온다.

회준 : (차에 키를 꽂는 흉내를 내며) 부릉 ~부릉~

현우 : (현우가 차에 타고 싶어 회준이를 지켜보다가) 음악도 틀어~

회준 : (음악을 트는 시늉을 하고는 곰 세마리 노래를 부른다.)

치익~ 곰세마리가 한집에 있어

승준 : (회준일 차를 향해 다른 차를 타고 오더니)비켜~.

회준 : (차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며) 아빠차 돌리래요?.

승준 : (회준이가 자신이 가리키는 쪽으로 차를 움직이지 않자)아니~

저쪽으로 가~ (4월 8일)

아빠가 될 수 있는 자동차

빨간 자동차에 타면 아빠가 될 수 있다. 영아들이 보기에 아빠가 운전하는 모습은 한 손으로 자동차 핸들을 조작하고, 전화도 받고 한 손으로 후진해서 주차시키는 멋진 모습으로 비춰지고 영아들은 그 일상을 재연하는 놀이를 한다. 아빠는 영아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아빠는 자동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해서 “아빠 왔다” 인사도 한다. 또 아빠차가 고장났던 경험이나, 사고났던 경험도 놀이에선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승준 : (한 손에는 핸들을 한 손에는 전화 받는 흉내를 내며) 도착해 ~ 기다려
(소꿉집에서 놀이하고 있는 민경이와 원석이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후진해서 차를 주차시키며) 애들아 아빠왔다.

민경 : (승준에게 와락 안기며)아빠~

원석 : 아빠~ 원석이 아가예요

승준 : (교사를 보며)애들이 아빠 좋아한데

교사 : 엄마는 어디있는데..

민경 : (식탁에 앉아있는 승운이를 부르며)승운아 이리와 승운이 엄마~

승운 : 승운이 엄마예요~ (3월 31일)

현우 : 선생님 차가 고장났어요

교사 : 어디가 또 고장 났어요?

현우 : 바퀴가 고장 났어요.

(해인이 차에타려하자) 안돼

차 고치러 가야해. 에이~ (4월 13일)

현우는 아빠차가 고장나서 고치러 가는 놀이를 많이 한다. 하원 하는 길

에 현우 어머니께 여쭙어 보니 주말에 현우가 할머니 댁에 가면서 차바퀴가 고장나서 아빠는 차를 고치러 가고 현우 누나와 현우 그리고 엄마만 먼저 택시를 타고 할머니 댁에 갔다고 한다. (4월 15일, 현우 어머니 면담)

회준 : (회준이가 빨간 차를 끌고가다 현우가 타고 있던 차와 일부러 부딪치곤)
꽁~차 사고 났어.

회준,현우 : 히히

교사 : 어떻게 해? 사고나서.

현우, 회준 : 괜찮아요.. 안아파요.(4월 21일)

오후에 귀가하면서 회준이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아이가 좀 놀랐던 것 같다고 했다.(4월 22일 회준이 아버지 면담)

그 때문인지 회준이는 낮잠 시간에 요에 쉬를 했다. 안에서 놀이하면서도 회준이는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다른 영아들과 놀이감을 가지고 다툼도 잦았었다.

대부분의 2세 영아들은 아빠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어 시동을 켜고 핸들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며(Segal 과 Adock, 2000) 남아들은 자동차와 자전거를 선호하고(Tizard와 동료들, 1976 ; 강문희 외, 1999) 실물과 유사한 사물을 상징화하여 놀이함을 기술하고 있다(이지향, 2002). Sroufe(1979)는 2세시기는 동일시의 형성시기로 놀이에서 성인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해결한다(이영자, 이기숙, 1993 재인용)고 하였는데 사랑받던 남자 영아들도 아빠를 동일시하여 아빠를 흉내내었으며 아빠차와 닮은

빨간 자동차는 아빠를 흉내내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되어주었다

또한 2세 영아들은 아빠차가 고장나고 사고나서 무섭고 불안하고 공포스런 기억들도 놀이 속에서는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해결하였다. 놀이에는 어린이의 기쁨, 불안, 좌절, 질투, 공포 등 모든 감정이 표현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감정의 표출을 통해 어린이의 정서 부적응이나 문제 행동이 자연스럽게 치료된다고 주장하였다.(이숙재, 1997) 사랑받 영아들도 놀이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함을 볼 수 있었다.

2) 핑 대신 닭을 택한 영아들

다른 자동차와 자전거 선택

빨간 자동차를 탈 수 없게 된 영아들은 다른 자동차와 자전거를 택하여 놀이를 하였다. 다른 자동차와 자전거를 탄 영아들은 빨간 자동차를 타고 싶어 빨간 자동차를 탄 영아 주변에서 놀이하러 오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빨간 자동차에 미련이 남아 빨간 자동차를 탄 영아 주변에서 놀이하러 오는 사례이다.

희준 : (오랫만에 빨간 자동차를 타고)부웅~

현우 : (다른 자동차를 타고 경적을 울리며)빠앙~ 비껴줘~

해인 : (전화기가 달린 자동차를 타고 현우를 따라가며)어보세요~ 아빠

승준 : (자전거를 두발로 끌며 희준이 주변을 서성인다.)

교사 : 애들아~ 같이 있으면 자동차 타기 힘들어요. 떨어져서 타세요.

(3월 26일)

3 . 실외놀이터에서의 탐색과 놀이

놀이감은 내 친구

실외놀이 초기에 2세 영아들은 실외 놀이기구에 다른 놀이감을 친구로 생각하여 태워주는 놀이를 하였다. Piaget(1968)는 전조작기 영아들의 특성으로 물활론적 사고를 들고 있다. 사랑반 영아들도 사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여 의인화하여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희준 : (트럭을 차위에 태워주며)집에 가자?

교사 : 집에 대려다 주려구?

희준 : 응

교사 : 그런데 트럭 떨어지겠다.

희준 : 아니야

승은 : (기차를 그네에 태우며) 태워줄게 재미있지 ? 기차야

기차야 떨어지지 않게 꼭 잡아

해인 : (미끄럼틀에 비행기를 태우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보며)야아~

(3월 3일)

나만의 방식대로

영아들은 실외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신체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찾아 스스로의 방식대로 놀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아들은 자신의 발달단계에 맞는 미끄럼틀을 찾아 놀이하고, 자전거를 발로 끌면서 탔으며 그네를 타면서 스스로의 다양한 방식을 찾아 놀이를 하였다. 미끄럼틀을 타면서 25개월

영아들은 작은 미끄럼틀을 타고 30개월 이상 된 영아들은 큰 미끄럼틀을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25개월 영아들도 큰 미끄럼틀에 타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으며 30개월 이상 된 영아들도 큰 미끄럼틀을 능숙하게 타지 못하여 작은 미끄럼틀과 큰 미끄럼틀을 번갈아 탔다. 30개월 이상 된 영아들은 작은 미끄럼틀에서 큰 미끄럼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며 이들에게 큰 미끄럼틀은 하나의 도전과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영아들이 미끄럼틀을 타는 한 장면이다.

의준 : (큰 미끄럼틀에서 엉덩방아를 찧더니 작은 미끄럼틀로 가서는)히히
(작은 미끄럼틀을 타고는)좋아~
(10분간 여러번 계속탄다) (3월 10일)

승준 : (큰 미끄럼틀을 타며 엉덩방아를 찧고 작은 미끄럼틀에서 미끄럼틀을 타며) 이것도 재밌네
(몇 번을 되풀이 해서 탄후 다시 큰 미끄럼틀로 와서 미끄럼틀을 타며)
와아~ 선생님 ~ 나봐요. (3월 12일)

30개월 된 승준이는 작은 미끄럼틀에서 큰 미끄럼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어 큰 미끄럼틀을 타다가 엉덩방아를 찧었고 큰 미끄럼틀과 작은 미끄럼틀을 번갈아 가며 탔었다.

그네를 타면서도 영아들은 그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놀이를 하였다. 25개월된 영아들은 배를 그네에 대고 타고 30개월 이상 된 영아들도 배를 그네에 대고 줄을 꼬아 풀러지게 타며 영아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네 타기를 즐겼다. 이숙재(1994)는 유아들이 그네를 앉아서 타기, 그네 줄을 꼬아 타기 등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탔다고 기술하였다. 사랑반 영아들

에게서도 그네를 스스로의 방식대로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의 사례는 그네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타는 모습의 한 장면이다.

은찬 : (그네 의자에 배를 걸치고) "엄마 미 미"

교사 : 밀어달라고

선생님이 밀어줄게

자 앉자보자.

은찬 : (그네에 앉자 타다가 곧 손을 놓아버린다.)

아양

교사 : 다칠뻔 했잖아요. 손을 놓으면 안돼요

은찬 : 미워~ (그리곤 계속 그네의자에 배를 대고 10분간 탄다.)(3월 18일)

민경 : (그네를 배에 대고 여러번을 타다가 그네에서 내려 그네 줄만 꼬아서 밀어본다.) 잼있다.

(배를 대고 그네줄을 꼬아서 돌아가도록 하며 그네를 탄다.)선생님 이거 봐요.

희준 : (민경을 따라하며)나도요.(3월 19일)

위에서 보여주듯이 2세 영아들은 자신의 신체에 맞는 놀이감을 찾고 스스로의 다양한 방식으로 놀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세 영아들의 특징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들고 있다(Erickson, 1963 ; Fergus, 2003). 영아들은 보호자로부터 독립하여 혼자서 놀이를 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욕구는 실외놀이에도 반영되어 영아들은 스스로의 방식대로 놀이기구를 사용하여 놀이를 하였다.

때로는 도움을

실외놀이터에는 영아들이 혼자서 놀이하기에 힘든 놀이기구가 있음에도 도움을 받기보다는 혼자서 하려 하였다. 그러나 2세 영아들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깨닫고 성인에게 의존하며 이 때 영아들은 “애교스러움, 뽀뽀”등으로 성인을 조정하려 한다(Wilson, 1986 ; Segal 과 Adock, 2000). 사랑받 영아들도 혼자서 놀이기구를 타기 어렵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놀이기구를 타고 싶으면 교사에게 애교를 부리며 도움을 청하였다. 다음은 교사에게 애교를 부리며 도움을 구하는 한 장면이다.

승은 : (교사가 앉혀주려 하자) 내가 할거야~

교사 : 그래 승은이 혼자 할 수 있구나

승은 : (몇 번을 배를 대고 타다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승은이 앉혀주세요

교사 : 혼자 탄다고 하더니. 선생님이 그네 잡아주실게, 앉아보세요.

승은 : 승은이 못해~ 선생님이 해줘~

교사 : 승은이가 혼자 해보고 안되면 선생님이 해주실게

승은 : (불에 뽀뽀하며)선생님이 해주세요..

교사 : (승은이를 앉히고 그네를 밀어준다.) 밀어달라고 예뻐 짓 하는구나.

밀어줄게~ 하나, 둘, 셋~

승은 : (까르르 웃으며) 신난다. 세게 밀어주세요.

교사 : 승은아 기분이 어떠니?

승은 :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3월 22일)

영아들은 실외놀이를 하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발휘하기도 하였으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다른 방식으로 놀이를 하고자 하면 의존적으로 교

사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25개월 영아들은 미끄럼틀을 타겠다고 계단을 올라가서 아래를 보고는 '무서'하며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무섭다고 하면서도 영아들은 끊임없이 큰 미끄럼틀에 도전을 하였다. 쌍쌍카와 같이 다른 실외놀이기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혼자서 놀이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면 영아들은 교사에게 의존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4 . 자연은 영아들의 놀이터

자연은 그 자체가 영아들에게 놀이감도 놀이터도 되어준다. 영아들은 루소의 말대로 작은 것에 집중한다. 우리들이 커다란 목련. 진달래, 철쭉꽃을 볼 때도 영아들은 잔디밭에 작게 핀 민들레 꽃에 관심을 기울인다. 작은 벌레며 곤충들도 영아들에겐 너무도 신기하고 흥미로운 존재이다.

잔디 미끄럼틀

영아들에게 자연은 놀이기구가 되어주고 영아들은 그것을 찾아 놀이를 한다. 다음의 사례에서 영아들이 미끄럼틀보다 더 유용하게 잔디 미끄럼틀을 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우 : (동산의 구룡진 언덕에서 엉덩이를 대고는 소리를 내며 내려온다.)

와아~슈우~

희준 : (엉덩이를 잔디밭 언덕에 대고 내려온다)히히

사랑반 영아들 : (모두가 미끄럼틀을 타며)야아~(4월 27일)

내 눈에만 안보이면

영아들은 동산 주변의 큰 나무들과 아름답게 핀 꽃들을 이용하여 숨기놀이를 하며 눈만 숨기고. “안보이지~ 혹은 누구누구 어딴데요?”하고 자신들을 찾으라고 하고 교사는 일부러 안보이는척 어딴지? ○○ 어딴니? 하며 모르는척 찾으러 다닌다. 이렇듯 영아들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놀이를 하였으며 Piaget(1966)가 전조작기 영·유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자기중심성을 들고 있는데 사랑반 영아들도 자신의 눈에만 안보이면 다른 사람도 안보인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성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현우 : (나무뒤에 숨으며)안보이지? 현우 없다.

교사 : (얼굴만 숨기고 나무사이로 다 보이는 현우를 보며)어디 있지?

현우 어딴니?

현우 : 하하하 요기 있지? 하며 나무에서 나온다.(3월 10일)

민경 : (전달래 꽃뒤에 숨어서)민경이 어디있게?

교사 : (꽃사이에 민경이가 보이는데)민경이 어딴지? 어딴지?

민경 : (얼굴에 가득 미소를 띠며)민경이 요기 있는데..(3월 23일)

꽃잎 김치와 돌맹이 반찬

이숙재(1994)의 연구에서는 5세 유아들이 놀이터 주변의 꽃과 풀잎, 흙과 돌맹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놀이를 하는 모습을 기술하였는데 사랑반 영아들도 놀이터와 동산에 있는 돌과 떨어져 있는 꽃잎, 들꽃들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상징놀이와 역할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음의 사례는

자연물을 이용하여 놀이하는 한 장면이다.

승은 : (목련꽃잎을 주어서 그릇에 담으며)김치 먹으면 키도 크고 예뻐진다. 먹
어? 안먹어?

민경 : 싫어

승은 : 그래도 먹어.(목련꽃잎을 먹는 척을 하며)얼마나 맛있는데.

민경 : 난 이거 먹을래~ 이거뭐야?

승은 : 콩이야 콩, 예쁘지

엄마가 먹어볼게 (손가락으로 먹는 척을 하며)음 맛있다.

민경 : (같이 먹는 척을 하며)설탕을 더 넣어야돼

승은 : 아가 안먹으면 엄마가 먹을거야

남남남남 맛있다.(3월 22일)

은찬 : (주변에 있는 모래와 풀을 섞으며)자장면 먹어

교사 : 맛있겠다. 김치가 없네

희준 : (주변에 핀 꽃잎을 따서)여긔어 김치

승준 : (옆에서 트럭에 모래를 담다가)어제 아빠하고 자장면 먹었어.

민경 : 민경이도 엄마하고 언니하고 먹었어

교사 : 맛있었겠다. 주방선생님께 자장면 만들어 달래까?

승준, 민경 : 네

희준 : 나두

은찬 : (하얀 철쭉꽃잎을 들고는) 만두 만두

교사 : 만두 먹으라고(4월 8일)

남자 영아들이 나뭇가지를 주우면

Pellegrini와 perlumutter(1988)는 실외에서만 나타나는 거친 신체놀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거친 신체놀이는 장난기 있고 재미있어 하는 얼굴 표정과 뛰기, 쫓기, 도망치기, 씨름하기, 가짜로 때리기 등의 놀이라고 하였다. 남자 유아들과 마찬가지로 사랑반 남자 영아들에게서도 거친 신체놀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거친 신체놀이의 한 장면이다.

승준이는 평소놀이할 때는 친구들에게 놀이감을 나누어 주거나 하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데 동산에서 같이 칼싸움 놀이를 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나뭇가지를 나누어 주었다.

승준 : (나뭇가지를 주어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며)여기있어

해인 : (나뭇가지를 받아들고)이거

현우 : 이거 뭐야?(웃으며) 하하

회준 : 나두 줘. (웃으며)헤헤

승준과 현우 : (칼싸움을 하며)에잇, 야~

회준과 해인 : (칼싸움하고 있는 현우와 승준이에게 나뭇가지를 들고 때리려한다.) 야앗~

교사 : 애들아 나뭇가지 얼른 버리세요. 그만 하세요(4월 27일)

승준이 어머니에 따르면 승준이는 집에서도 형과 함께 로봇을 흉내낸 놀이를 많이 하고 형과 자주 싸워서 걱정이 된다고 했다. 요즘 승준이 형이 태권도를 배우는데 놀이하면서 동생에게 태권도를 가르친다고 했다. 승재(승준이형)가 태권도를 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운동하는 것은 좋은데 동생과 자주 싸우고 태권도 한다고 동생을 때려서 걱정이라며.....말끝을 흐렸다. (승준이 어머니 면담 4월 29일)

교사는 영아들이 다칠 것을 염려해 거친 신체 놀이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아들은 교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산에 가면 나뭇가지를 찾고 교사 몰래 자기들끼리 놀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승준 : (나뭇가지를 주워 들고는 총을 쏘는 시늉을 하며) 팡 파양~

현우 : 으억(잔디밭 위에 쓰러진다.)

승준 : (현우에게 다가와) 헤헤헤

손으로 현우를 찌른다.

현우 : (승준에게 별채기를 한다.) (4월 30일)

영아들은 거친 신체놀이에서 총을 쏘면 쓰러지는 흉내는 내는 등의 서로 간의 약속과 합의를 통해 놀이를 진행하였으며 놀이를 하기 위해 놀이감을 나누는 행동도 보여주었다.

동산에 등장한 호랑이와 사자

영아들은 바깥놀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징놀이를 하였는데 동산에서는 영아들이 동물을 흉내내는 놀이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동물을 흉내내는 상징놀이 사례이다.

희준 : (사자 흉내를 내며 현우에게로 간다.) 어흥 난 사자다.

현우 : (호랑이 흉내를 내며) 어호호~ 난 호랑이다.

승준 : (멀리서 달려오며) 나도 사자다.

민경 : 늑대다. 선생님 우리집에 늑대와요.

교사 : 그래~ 늑대가 집에 왜 오는데?

민경 :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서요.

아름다운 파괴자

영아들은 동산을 산책하며 들꽃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놀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영아들은 작은 들꽃들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꽃을 죽이는 것 인줄 모르면서 꺾어 놀이하는 아름다운 파괴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영아들은 조그만 돌맹이에도 관심을 가지고 놀이를 하였다. 다음은 꽃과 돌맹이에 관심을 가지고 놀이하는 사례이다.

민경 : (제비꽃이며, 노란색, 흰색 들꽃들을 가르키며) 여기 꽃 있어요.

교사 : 그래 예쁜 꽃이구나.

민경 : (몇송이를 뽑아 머리에 얹고는) 민경이 예뻐?

교사 : 예쁘다. 민경이

승은 : (보물을 발견 한 듯이) 선생님 여기 있어요.

교사 : 거기도 있네.

(민경이 머리에 있던 꽃들은 민경이가 달려서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민경이는 개의치 않고 또 꽃들을 꺾는다.)

민경 : (꽃들을 꺾어 손에 꼭 쥐고는) 엄마 줄거예요.

교사 : 그래 엄마가 무척 좋아하시겠다.

승은 : (꽃을 따서 교사에게 주며)선생님 선물이에요.

교사 : 고마워~(꽃향기를 맡으며)향도 좋다.

승은 : 헤헤 (5월 3일)

동산에는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있다. 개나리와 벚꽃, 진달래가 피고 그 후에는 철쭉과 여러 나무에 꽃이 피었지만 영아들의 눈에는 작은 들꽃이 귀엽고 예쁘게 느껴지는지 보일 듯 말 듯한 꽃들도 잘 찾아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도 하고, 예쁘다며 머리에 얹고 다닌다.

현우 : 선생님 여기 꽃있어.

교사 : 민들레 꽃이네.

현우야~ 민들레 흙씨다..

현우 : (민들레 흙씨를 따서 불며 노래를 부른다.)나뭇가지에 실처럼 날아든 솜사탕 꼭꼭

회준 : (현우가 민들레 흙씨를 따서 부는 걸 보더니 흙씨를 찾아 현우처럼 불며) 후우~ 재미있다. 나뭇가지에 실처럼 날아든 솜사탕

이 모습을 본 사랑반 영아들은 모두 민들레 흙씨를 찾고는 침이 나와 흙씨가 얼굴에 붙을 정도로 세게 불고는 '솜사탕'노래를 불렀다. (4월 28일)

어린이집 옆 동산에 가려면 영아들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턱이 있는데 그 곳에는 작고 조그맣고 맨들맨들한 돌들이 많이 있다. 영아들은 무슨 보물을 발견한 듯 돌을 주어서 주머니에 차곡차곡 넣는다. 그렇게 넣다보니 동산을 산책하고 들어갈 때쯤이면 주머니가 불룩해져 있다. 교사는 영아들에게 돌을 동산에 버리고 가자고 하지만 영아들은 집에 가져가고 싶어한다.

해인 : (동산 턱에 앉아서 가만히 돌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씩 들씩 주머니에 넣기 시작한다.)

회준 : 뭐야?(하고 묻더니 해인을 지켜보다 자신도 같이 돌을 주어 주머니에 넣는다. 주머니에 넣은 돌을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하며, 피식 웃는다.)

교사 : 애들아 그만 놀이하고 교실로 들어가자.

회준아, 해인아 주머니에 넣은 돌 버리고 가자.~

해인 : 싫어 집에 가져 갈거야 -

교사 : 그럼 장에 넣고 교실에서 놀이 할 땐 꺼내지 않아요.

해인 : 네 (3월 13일)

영아들의 두 얼굴

영아들은 벌레에 관심이 많아 놀이하면서도 벌레 찾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2 살 영아들은 동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동물들을 만져보고 싶어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쫓아다니며 동물을 조정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2 살 영아들이 동물을 무척 좋아하고 동물을 친구로 생각하여 쫓아다니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기도 한다(Segal 과 Adock, 2000). 사랑받 영아들은 벌레 찾기를 즐기며 많은 호기심을 보였으나 벌레를 찾으면 피하거나 무서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 하였다. 다음은 벌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무서워하는 사례이다.

현우 :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려다가)어 어~~무서워~~

교사 : 왜 현우야!

현우 : 이리와봐

교사 : 벌레구나. 방구벌레다.아니 노린제네

현우 : 무서워~

교사 : 현우야 무서워하지만

선생님이 다른곳에 옮겨줄게

현우 : 방구벌레 어디갔어요?

교사 : 방구벌레 아니 노린제는 집에 갔어

현우 : 왜요? 집에 갔어요?

교사 : 현우도 얼마하고 집에 가잖아

민경 : 으허~~무서워~~여기있다.

현우 : 집에 안갔잖아

승준 : (흙을 뿌리고 침을 뱉으며)이제 없어(5월 4일)

현우는 거미나 개미를 보면 지나치게 무서워한다. 한동안은 엄마가 벌레는 나쁜 거라고 했으며 발로 밟아 죽이곤 했다. 교사가 나쁜 벌레와 좋은 벌레가 있다고 하며 거미나 개미를 죽이는 것은 나쁘다고 하자 벌레를 보면 교사를 부른다. 교사가 치워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현우 어머님과 귀가지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현우는 집에서도 덩치에 맞지 않게 벌레를 무서워한다고 했다. 아마도 모기에 많이 물려서 벌레를 잡아야 한다고 했던 것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현우 엄마는 벌레를 보면 본인도 징그러워서 아빠에게 잡아달라고 하는데 현우도 자신을 닮아서 인 것 같기도 하다며 남자애가 소심하다고 했다.

(현우 어머님 면담, 5월 7일)

현우 : 자동차를 타고 개미를 찾으러 다닌다.

승준 : 삼을 들고 다니며 개미를 찾다가 여기봐~
이리와봐~

화준 : 여기두 있다.

만경, 해인, 은찬, 의준 : 와아~ 개미다.

현우 : 무서워~

희준 : 무서~

교사 : 개미가 뭐가 무서워~

희준 : (개미가 무섭다고 하며 발로 밟는다)에잇~

승준 : (침을 뱉으며~)이제 죽었다.

영아들 : 모두다 같이 발로 밟는다.

교사 : 애들아 개미 죽이면 안돼~(4월 26일)

Inagaki(1990)는 어른들의 선입견이 아이들의 생물에 대한 관심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하고 교사가 생물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거나 생물에 대한 편견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서는 안된다(Inagaki, 1990)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현우는 어머니의 생물에 대한 태도를 모델로 하여 생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영아들도 현우를 따라서 별레는 무서운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었다.

5 . 실외놀이에서 또래와의 협동

구덩이 파기의 달인

영아들은 실외놀이를 하면서 협동하여 놀이를 많이 하였다. 물모래 놀이를 하면서 남자 유아들은 땅파기, 모래 쌓기, 수로 만들기 등의 놀이를 주로 한다(양현주, 2003). 이와 같이 사랑반 영아들도 땅을 집중해서 파서 구덩이를 만드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영아들은 협동하여 구덩이를 파고 모래를 파면서 나오는 잃어버린 장난감과 생물에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였다. 다음의 예는 잃어버린 장난감과 생물에 관심을 갖는 한 장면이다.

영아들 : (얼굴에 가득 웃음을 짓고는 모래를 삽으로 판다.)치익~

승준 : (팔이 떨어진 작은 로봇을 들고)여기 봐~

선생님 여기 보세요.

교사 : 장난감 주었구나.

영아들 : 나두 나두 보여줘(4월 13일)

현우 : (벌레를 찾으러 다니다가 앞에 벌레가 나오자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를 지른다.) 으어~.

해인 : (땅을 파다가 개미를 발견하고는) 개비~

해인이는 개미라는 발음을 잘 하지 못해서 개미를 개비로 발음한다.

현우 : 벌레다

영아들 : 개미, 벌레~

교사 : 개미구나.

현우 : 무서워~ (4월 20일)

협동의 법칙 - 함께 놀이해야 재미있다.

실외놀이를 하면서 영유아들은 함께 하는 놀이와 언어적 상호작용이 증가한다(정은경, 1999 ; 이현경, 2003).실외놀이 기구에는 협동하여 놀이해야 하는 기구가 많다. 영아들은 그 중에서도 시소와 끝차를 자주 이용하였고 이러한 놀이기구를 타면서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협동하기와 같은 친사회적 기술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시소를 타면서 영아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한 예이다 .

회준 : (시소를 말처럼 타고는)안돼 ~

해인아 같이~하자

해인 : (회준뒤에 타고는) 나두

회준 : 안돼~ 왜 안돼 고장났나?

승은 : (다른쪽에 타며)내가 할거야~

회준 : (시소가 움직이지 않자 해인을 보며)내려~

해인 : 싫어 안해

민경 : (뛰어와서 승은이가 있는 쪽에 타며)승은아~ 같이하자

회준, 해인 : (민경이와 승은이가 탄쪽이 내려가자) 와아~ 신난다. 고정 안났네.
(무게가 같아야 균형이 맞아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데 민경이와 승은이가 탄 쪽이 무거워서 올라가지 않자 승은이와 민경이쪽 시소가 올라갔음 좋겠다며 해결 방안을 내어 놓는데 그것이 자리를 바꾸자는 것이다.)

승은, 민경 : 우리도 올라갈래 우리 바꾸어서 타보자.

(넷이서 자리를 바꾸었지만 시소는 여전히 민경이와 승은이 쪽이 내려가 있다.)

승은, 민경 : 재미없어~

교사 : 승은이하고 회준이가 같이타고, 민경이와 해인이가 같이 타볼까~

회준 : 왜요?

교사 : 그러면 너희들 넷이 모두 재미있을 것 같은데..

(승은이와 해인이가 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리를 바꾸자~ 시소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다.)

영아들 : 와아~ 정말 재미있다.(4월 26일)

영아들은 끝차 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에 타고 있는 또래 혹은 그네를 타는 영아들도 밀어주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실외놀이를 하면서 영아들은 도와주기, 나누기, 협동하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도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현우 : (끝차에 탔는데 아무도 끌어주지 않자)회준아 나 밀어줘~

회준 : 싫어

현우 : 회준아 타 내가 밀어줄게

회준 : 끝차에 타고는 웃는다. 히히히

현우 : (조금 끌어주다가) 나도 탈래~

회준 : 현우 타~

현우 : (신나서 탄다)(3월 31일)

현우는 끌어줄게라는 말 대신 밀어준다는 표현만을 알고 있어 그 말을 사용했다. 누군가 끌어주길 바라는데 친구에게 끌어달라고 하지만 끌어주지 않자 옆에 친구를 먼저 끌어주고 다음에 자신을 끌어달라고 한다. 이렇듯 영아들은 같이 놀이를 하면서 협상 행동도 보여주었다.

6. 실외놀이에서의 갈등과 해결

1) 갈등의 원인

거꾸로 올라갈 수 없는 미끄럼틀

실외놀이기구를 사용하는데 있어 영아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하려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원래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혹은 다른 용도로 기구를 사용하는 것과는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원래의 방식과 다른 형태의 기구 사용은 또래간에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다음은 놀이기구의 용도를 다르게 사용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한 장면이다.

승준 :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회준이가 앞을 막는다.) 비켜

회준 : 싫어~ 올라~갈거야~

승준 : 비켜

회준 : (괴성을 지르며) 으어어~승준이 미워~

교사 : 미끄럼틀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내려와야지~ 승준이 하고 부딪혀서 다쳐요

회준 : 선생님 미워~

승준 : 거봐~(3월 31일)

희준이는 평소에도 바깥놀이에 나오면 소리를 잘 지른다. 특히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더 소리를 지른다.

똑같은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와 자전거가 있음에도 사랑반 영아들은 빨간 자동차를 무척 선호하여 빨간 자동차만을 타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였다.

Wellhousen(2002)는 2, 3세 영아들은 왜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고 걸음마기 영아들에게 장난감 탈 것을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거나 모래상자 속에 있는 삽은 함께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사랑반 영아들에게도 빨간 자동차를 순서대로 탄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힘들 일로 여겨졌다. 다음은 이와 같은 사례의 한 장면이다.

현우 : (빨간 자동차를 빨리 뛰어가서 먼저 타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히히

희준 : 빌려줄래~

현우 : 싫어

희준 : (핸들을 붙잡고)빌려줄래~

현우 : (현우는 얼굴을 찡그리며) 선생님 애가 빌려달래요.

교사 : 희준아 조금 기다렸다 타자~ 현우도 조금만 타고 희준이 빌려주자~

희준 : (뒤늦게 신발을 신고 나와서 현우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들이밀며)

내가 타~

희준이는 25개월인데 간단한 두 단어 정도를 연결해서 말할 수 있다. 또래보다 말을 잘 못한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놀이하고 싶은 놀이감에 대해서는 반듯이 가지고 놀려고 한다.

현우 : (얼굴을 찡그리며 울상이 되어)으으으~ 아양~ 선생님

교사 : 의준아~ 다른 자동차 타자~

의준 : 싫어하며 운다. (5월 3일)

회준이는 빌려줄래~ 라는 사회적 규칙을 배웠다. 그렇지만 빌려줄래라고 말하면 누구든 놀이감을 바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기다려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곤 친구가 빌려주지 않으며 계속 쫓아다니고, 그래도 안주면 뺏으려 하거나 화를 내었다.

내 놀이감은 내 것 네 놀이감도 내 것

바깥놀이터에 나오면 영아들은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하고 싶어 하며 소유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영아들에게 또래와 장난감을 나누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Wellhousen, 2002) 한꺼번에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하고 싶어서 놀이감을 맞아 놓는 등의 모습도 보여준다. 다음은 자신의 놀이감이 있음에도 친구의 놀이감을 소유하여 놀고 싶어 갈등을 일으키는 한 장면이다.

원석 : 기차를 가지고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앞뒤로 굴린다.

회준 : (트럭위에 삼으로 모래를 퍼담으며)푸쉬~

(모래를 트럭에 담다가 원석이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기차를 노려본다.

그리곤 모래가 쏟아지는 줄도 모르고 기차를 빼앗는다.)

원석 : (멍하니 쳐다 보다가 울면서 기차를 손으로 잡는다)아양~ 나줘 내꺼 . (3월 12일)

남의 장난감이 더 커보이는 영아들

영아들은 또래와 같은 놀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꾸자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똑같은 장난감임에도 바꾸자고 하고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서 또래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실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연구한 박명희(1999)에 따르면 만 2세 또래간 갈등의 유형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다음은 이와 같은 갈등의 사례이다.

회준 : 신나서 그네를 배로 밀며 그네를 타고 있다. 슈슈~히아~

승은 : (그네를 두 번 타다가 왼쪽 그네에 타고 있는 회준이를 바라보다가 바꾸자고 한다.) 바꾸자~그네

회준 : 싫어

승은 : 회준아 여기타, 바꾸자~

회준 : 안해, 싫어

승은 : (회준이의 그네를 손으로 잡으며)비켜~ 내가 탈래~

2) 갈등의 해결

사탕과 껌의 유혹

놀이상황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사랑반 영아들은 친구에게 보상을 제공하여 자신이 원하는 놀이감을 얻으려 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러한 보상이 또래간에 통용이 되었으며 영아들은 스스로의 놀이감을 내어주거나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다음은 보상을 제공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놀이를 하고 놀이감을 얻는 사례다.

민경 : (그네에 타고 교사가 밀어주다가 자리를 뜨자 현우를 부르며 밀어달라고 한다.)현우야~ 밀어줘

현우 : 안해 싫어

민경 : 현우 미워~ 아빠한테 다 이룰거야.
너 사탕 아빠한테 사달래서 안줄거야

현우 : 민경아 밀어줄게

. 아빠한테 사탕 달래서 나도 줘

민경 : 알았어 줄게 (4월17일)

승준 : (빨간 자동차를 타고)부웅~ 빠방~~

현우 : 빌려줄래~

승준 : 싫어

현우 : 너 껌 안사줄거야?

희준 : 나는 사줄거야?

현우 : 사줄게

승준 : (자동차에서 내리며)여기 타, 나도 껌 사줘(4월 21일)

선생님께 이르기

박명희(1999)는 또래갈등의 해결에서 스스로가 해결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도와준 경우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랑반 영아들은 싸우고 놀이감을 빼앗기면 교사에게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갈등의 해결을 위해 교사에게 이르는 한 예이다.

현우 : (트럭에 삼으로 모래를 퍼 담으며 놀이하고 있는데) 슈욱~

승준 : 빌려줄래

현우 : 싫어 안해

승준 : (트럭을 억지로 뺏으려하자 현우 놓치지 않으려 하며 둘이 때리고 싸운다)
다)미워

현우 : (징징거리고 울며)선생님 승준이가 때렸어~요

승준 : 현우도 때렸어. 안빌려준데

교사 : 애들아 왜 싸우고 그래요. 누가 먼저 가지고 놀이했어요.

승은 : 현우가 먼저했어요.

교사 : 그럼 현우야 조금 타고 승준이 비려주자

승준이 조금있다가 타자

승준 : . 싫어

교사 : 승준아~

승준 : (빠져서 돌아보지 않고는 미끄럼틀로 간다)선생님 미워~(4월 14일)

아주 가끔은 양보하기

사랑반 영아들은 놀이감 혹은 놀이기구를 가지고 싸우는 일이 자주 일어나지만, 아주 가끔은 양보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그네를 타다가 친구에게 먼저 타라고 하기도 하고 작은 놀이감을 가지고 놀다가 친구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Caplan(1991)은 만 2세 영아가 장난감을 놓고 보인 갈등에서 양보를 보인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박명희, 1999 재인용) 사랑반 영아들도 양보하기는 가끔 보여주었다. 다음은 아주 가끔 양보하는 모습의 한 예이다.

민경 : (그네를 타면서 숫자를 센다)하나 둘 셋, 다섯, 일곱

민경이는 숫자를 제대로 세지는 못하지만 숫자세기를 즐기고 있다.

승은 : 나도 그네 탈래~

민경 : 나 두 번타고 줄게

승은 : (그네 옆 식탁에 앉아서 그네쪽을 보고 있다.)

민경 : (배를 대로 한번 왔다갔다 하더니 승은이를 부른다.)승은아 타

승은 : 고마워 (4월 30일)

회준 : 자동차를 가져와 땅위에서 굴린다. 아빠 빵빵

원석 : 나도 줘

회준 : (교사를 한번 보고는 건네주며) 자 여기

원석 : 히히히

교사 : 회준이 너무 멋있다. 친구한테 양보도 하고

회준 : (으쓱해 하며)하하(5월 6일) .

7. 실외놀이를 통한 변화

1) 사랑반 영아들의 변화

바람 타고 승승

실외놀이를 하며 영아들은 운동기술의 발달에 있어 변화를 보였다. 실외놀이를 시작할 초기에 영아들은 배를 대고 그네를 탔으며 작은 미끄럼틀과 큰 미끄럼틀을 번갈아 타고 세 발 자전거를 발로 끌며 놀이를 했다. 또한 썰렁카를 타지 못했다. 그러나 실외놀이 연구가 끝날 때쯤에는 영아들은 혼자서 그네에 앉을 수 있었고, 사랑반 영아들 모두가 큰 미끄럼틀을 타게 되었으며, 세 발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자전거를 타게 되었다. 또한 능숙하게

는 아니지만 썩썩카도 탈 수 있게 되었다.

영아들은 실외놀이를 통해 놀이기구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반복하며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놀이방법을 발전시켜갔다.

해인 : (썩썩카를 타고 몇 번을 넘어지다가 실외놀이터 통로의 양끝을 왔다갔다 한 번 하며)이거봐요

교사 : 와아~ 너무 멋지다. 저기 끝까지 갔다온거니?

해인 : 네

교사 : 썩썩카 타서 좋겠다.

해인 : 히히히 바람이 시원해요.(5월 19일)

벌레는 친구

실외놀이를 하면서 영아들은 벌레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부모와 또래에게서 학습된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실외놀이를 통해 영아들은 교사의 설명과 벌레와 계속 접하면서 벌레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친구가 되었다. 또한 영아들은 벌레를 잡았다가 놓아주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었다.

승준 : 선생님 개미

교사 : 개미있네.

승준 : (노란 통에 개미를 담으며) 이거봐요..

교사 : 개미 잡았네

현우 : 개미 죽었다.

승준 : 아니야 개미 안죽었어

민경 : 개미 죽이면 안돼

교사 : 애들이 점심먹을 시간됐다. 어서 들어가자.

승준 : (노란 그릇에 개미와 흙을 쏟으며)안녕

영아들 : 개미 안녕

2) 교사의 변화

없어서는 안 되는 실외놀이

실외놀이초기에 교사의 실외놀이의 가치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으며 실외놀이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실외놀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도 간과를 하였다. 그러나 영아들과 함께 실외놀이를 하면서 영아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못타던 놀이기구를 타게 되고 생물에 관심을 가지며 뭐예요? 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영아들에게 바깥놀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또한 실외놀이를 하면서 영아들은 실내에서의 갈등이 많이 줄어들어 줄 수 있었다. 실외놀이를 하지 못하는 날엔 영아들은 실내에서의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갈등도 더 자주 일어났다. 요즘 사랑반 영아들과 본 연구자는 실외놀이를 하면서 식목일에 심었던 방울토마토를 따서 먹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이렇듯 영아들에게 실외놀이는 다양한 경험의 장이 되어주고 있다. 이제 본 교사는 영아들이 넘어지는 것이 무서워서 그 많은 경험을 포기할 수는 없게 되었고, 부모님들께도 당당히 실외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아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임을 설명하고 있다. 더 이상 실외놀이는 실내활동을 위한 전이 시간도 아니고 영아들과 교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비 그쳤다 나가 놀자

비오면 실외놀이를 어떻게 해? 못하지? 실외놀이 초기에 교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다. 그러던 중 비가 오다 그 친 날에 영아들과 함께 실외놀이를 나갔다.

비가 온 뒤에 물웅덩이가 생겼고 영아들이 물웅덩이에 배를 띄우고 발로 물장구를 치며 흥분해서 놀이를 하였다. 비가 와서 모든 것이 젖어있을 때 영아들은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가 조금 오는 날에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나가보았다. 영아들은 우산 들고 다니는 것을 무척 재미있어 하였다. 이제 더 이상 비는 실외놀이에 대한 방해물이 될 수 없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영아들은 우산을 가져와 나가자고 하였으며 비가 조금 오거나 비가 그치면 영아들과 함께 바깥놀이를 나가게 되었다.

현우 : 선생님 비와요?

교사 : 응 비오네

희준 : (우산통에 우산을 가져오며)나가요?

교사 : 그래 애들아 나가자. 비 조금 온다.

영아들: 신난다.

교사 : 비웃있는 친구들은 비웃 가져오세요.

영아들 : (장화를 신고는)히히히

(우산을 들고는)이거 봐라?

승준 : (잔디를 발로차서 물을 튀기며)재미있어.

민경 : (물에 젖은 잔디에 주저 앉아)미끄러워 하하하(5월 17일)

V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실외놀이터에서 이루어지는 2세 영아들의 놀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자연스런 참여관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들은 실외놀이를 매우 좋아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하였다. 영아들은 실외놀이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빨리 정리하는 모습과 원하는 놀이감을 가지고 놀이기 위해 “신발을 빨리 신고 달리기”와 같이 스스로의 기본생활습관을 단련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영아들은 실외놀이를 하고 싶어 날씨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정은경(1999)의 연구와 걸음마기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이현경(2003)의 연구에서도 실외놀이 시간에 대한 설레임과 실외놀이를 많이 하고 싶어 정리를 빨리 하는 모습을 기술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둘째 실외놀이시 2세 영아들은 놀이기구의 선택에 있어 자동차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사랑반 영아들은 다른 자동차가 있음에도 특히 빨간 자동차를 많이 좋아하였는데 그 이유는 핸들, 아빠 차와 닮았고, 빨간 차를 타면 아빠가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되어주기 때문이었다. 남자 영아들에게 비친 아빠의 모습은 핸들을 한 손으로 운전하고 전화를 받고 한 손으로 후진하여 주차를 시키는 멋진 모습으로 비추어 지고 있었다.

남자 영아들이 자동차를 선호하는 것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Tizard 와 그의 동료들(1976)의 연구와 같았으며 아빠의 운전하는 모습을 가작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Segal 과 Adock(2000)의 견해와 부합하였다. 자동차를 놀

이감으로 선택하여 아빠를 가작화 하는 놀이는 실내에서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이지향, 2002 ; 김보현, 1999)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화정(2000)은 실외놀이시설에서 유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모래놀이라 하여 사랑반 영아들의 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과 자동차를 기타항목에 분류한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또래 주변의 놀이기구를 선택한다는 Winter(1983)의 결과와도 차이가 있었다.

셋째 그네, 미끄럼틀, 모래놀이 등의 놀이영역에서 영아들은 다양한 놀이기술과 스스로에게 재미있는 방법을 찾아 놀이를 하였다.

사랑반 영아들은 그네를 탈 때 배로 타기, 그네 줄을 꼬아 배로 타기, 앉아서 타기와 같이 다양한 놀이기술을 이용하여 그네를 탔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네를 타는 모습에 있어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숙재(1994)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미끄럼틀을 탈 때 처음에 영아들은 작은 미끄럼틀을 타고 익숙해지면 큰 미끄럼틀을 탔다. 25개월 영아들은 큰 미끄럼틀 타는 것을 무서워했지만 큰 미끄럼틀에 끊임없이 도전을 하였으며 30개월 이상 영아들도 큰 미끄럼틀과 작은 미끄럼틀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몰모래놀이를 하면서 영아들은 구덩이파기를 무척 즐겨하였다. 모래를 파면서 영아들은 모래 속에서 나오는 잃어버렸던 장난감과 벌레들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구덩이를 이용해서 빨간 자동차가 고장나는 상상놀이를 심화시켜 놀이하였다. 구덩이를 파는 행동에 있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현주(2003)의 연구와 결과가 같았다.

넷째 실외놀이를 하면서 2세 영아들은 자율성과 의존성의 양면적인 특성을 보였다. 실외놀이를 하면서 영아들은 자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발휘하고자 스스로의 방식대로 놀이기구를 사용하였으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의존적으로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자율성과 의존성의 양

면적인 특성에 있어 Segal 과 Adock(2000), 윤주화(1999)와 의견을 같이 하였다.1

다섯째 실외놀이에는 함께 놀이하는 놀이기구와 실외환경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영아들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영아들은 실외놀이를 하며 함께 하는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시소와 끝차에서 영아들은 함께 놀이를 많이 하고 상호작용도 증가하였다. 영아들은 시소를 타면서 무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또래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난 부분에 있어 이순연(1992)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상호존중하는 의사소통을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즐거움을 얻고자 또래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 상호작용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끝차를 타면서는 내가 타고 싶으면 또래를 먼저 태워주고 자신을 태워달라고 하는 사회적 행동도 보여주었다. 또한 영아들은 자유로운 실외 환경에서 잔디미끄럼틀을 함께 타고 동산에서 숨박꼭질을 하며 멀리 있는 또래 영아를 부르고 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해졌다는 결과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hartle(1996), 심숙영(1997), 정은경(199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여섯째 2세 영아들은 실외놀이에서 자연물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놀이에 적절히 이용하였으며 동물에 대하여는 호기심과 두려움을 나타내었다.

사랑반 영아들에게 자연은 놀이터도 놀이감도 되어주었다. 영아들은 나무와 꽃들 뒤에 숨어 숨박꼭질을 하기도 하고 영아들 자신만의 독특한 창의적 발상으로 운동장의 경사진 잔디밭을 미끄럼틀로 만들어 놀이하였다. 큰 꽃보다도 작은 들꽃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꺾어 선물을 하기도 하고 민들레 홀씨를 불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렇듯 창의적인 발상으로 자연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 Wilson(1996)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2세 영아들은 주변의 꽃들을 사용하여 음식으로 상징화하고 역할놀이를 하는데 있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숙재(1994), 양현주(199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였다. 사랑반 영아들은 벌레에 관심이 많아 바깥놀이에 나오면 벌레를 찾으러 다녔지만 벌레를 찾고는 무서워하여 피하기도 하며 죽이려고 하였다. 동물을 좋아하여 쫓아다니기도 하지만 무서워하기도 한다는 Segal과 Adock(2000)의 견해에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일곱째 실외놀이를 하며 2세 남자영아들은 거친 신체 놀이를 하였다.

2세 남자 영아들은 실외놀이에서 나뭇가지를 들고 총싸움, 칼싸움을 하였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거친 신체놀이가 남아들에게서 나타났다(Pellegrini와 perlumutter, 1988 ; Frost, 1992 ; Christie, Johnson & Yawkey, 1999 ; 정은경, 1999).는 결과와 같았다. 2세 남자 영아들의 싸움놀이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간의 약속이 합의되어 놀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먼저 영아 한 명이 총을 쏘면 다른 영아는 쓰러지는 모습이 그것이다.

여덟째 영아들은 실외놀이를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였다.

2세 영아들은 빨간 자동차 놀이를 하면서 아빠 차가 고장났던 경험이나, 사고났던 경험에 대한 공포와 불안의 감정을 실외에서 자동차가 고장난 상황을 반복하고, 사고난 경험을 재현함으로써 해소하였다. 놀이에서는 고장난 차도 쉽게 고칠 수 있고 사고난 경험도 아프지 않게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영아들에게 안정감을 찾도록 해주었다. 이처럼 공포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긍정적인 결말을 통해 놀이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한다는 것은 Freud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었고(신유림, 2000 재인용) 놀이를 통해 내부세계를 외부세계와 관련시켜 조직하며, 실제 상황에서 겪은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Erikson(1963)의 이론과도 부합되었다.

아홉째 실외놀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놀이기구의 선택과 놀이감 때문에 일어났으며 그 해결에 있어서는 보상을 제공하거나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동을 보였다. 실외놀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생기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놀이기구를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때, 놀이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친구의 놀이감을 뺏으려 할 때, 똑같은 놀이감을 가지고 있으나 바꾸려고 할 때, 놀이감은 한 개 인데 많은 영아들이 그 놀이감을 가지고 놀이하러 하면 갈등이 발생하였다.

갈등의 원인이 장난감 때문이라는 것과 “내꺼 “내꺼야“와 같은 강한 소유 개념의 표현에 있어 실내에서 이루어진 이강이(1998)의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놀이감 나누어 쓰기에 어려움을 시사한 부분은 Wellhousen(2002)의 견해와 일치하였다. 갈등의 해결을 위해 사랑반 영아들은 사탕과 껌 등의 보상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놀이감을 얻고자 했으며 놀이감을 빼앗겼을 때는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다. 갈등해결전략에 있어 사랑반 영아들은 선생님께 이르는 행동을 하였으나 실내에서 이루어진 박명희(1999)의 연구에서는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하여 차이가 있었다.

열째 실외놀이를 통해 영아들은 운동기술의 향상과 나누기 협동하기 등의 친사회적 행동이 보다 많이 발현되었으며 동식물을 접하면서 생물에 대한 소중함을 배워갔다.

실외놀이를 하면서 사랑반 영아들은 실외놀이 초기에는 타지 못했던 썩썩카와 같은 놀이감도 탈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식물을 가까이 자주 대하면서 초기에 보였던 동물에 대한 두려움이 친근함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와같이 운동기술의 향상부분에 있어 Wittmer(1997)의 견해에 부합하였으며, 생물에 대해 친근함을 느끼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워가는데 있어 임재택(2002), Walker(2003)의 의견을 지지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외놀이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는 영아를 통제하기 어렵다거나 안전사고가 걱정된다고 하여 실외놀이를 피하기보다는 영아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를 먼저 생각하여 실외놀이의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2세 영아들의 독특한 요구와 감각들을 이해하고 안정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들은 실외공간에 자연의 요소와 영아의 감각과 학습의 기본 기제들을 자극하는 자료와 경험들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문희 외(1999). 영유아 자율성 개발 프로그램. 서울 ; 학지사.
- 곽승주(2003). 영아-교사간 상호작용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수경(2000).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 실태에 관한 양적·질적 분석; 생태 유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접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 외(2002). 효과적인 영아 보육을 위한 지침서(1권). 서울 ; 다음세대.
- 김혜경 외(2003). 효과적인 영아 보육을 위한 지침서(2권). 서울 ; 다음세대.
- 노현주(1995). 실외놀이터 유형에 따른 유아의 놀이형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진순(2003). 실외놀이터의 질적 수준에 따른 유아의 실외 상상놀이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명희(1999). 만 2세아의 또래간 갈등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진영(2003). 산책을 통한 유아의 경험세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새세대 육영희(1987). 유아를 위한 실외놀이.
- 선애순(2003). 실내와 실외놀이환경에 따른 유아의 가상놀이비교.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병훈(2003). 유아교육시설 실외 놀이환경의 질적수준과 아동의 놀이행태 분석. 진주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동주(1997). 실외놀이장의 환경변화가 영유아 놀이환경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와 환경. 삼성복지재단. 국제학술대회. 198-210
- 신유림(2000). 유아의 상상놀이에서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권, 3호, pp. 133-142.
- 심숙영(1997). 교실환경과 놀이 환경이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 연구. pp, 173-186
- 양현주(2003). 모래놀이에서 소품 및 물의 제공이 유아의 놀이형태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현경(1997). 걸음마기 유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애열(1994). 유아의 상상놀이와 교사 개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애열(1999). 올바른 보육은 요람에서부터; 영아기의 놀이. 삼성복지재단 제7회 학술대회 자료집.119-146.
- 윤주화(1999).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강이(1998). 대물 다툼 상황에서 2세아의 또래 갈등 과정 분석.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숙(1985). 한국 유아 교육기관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연구II-시설,설비 모형의 적용 및 실외환경. 문교부, 서울시 교육 위원회.
- 이봉선(1998).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질적 수준에 따른 유아의 놀이행동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봉선, 이숙재(1999). 실외놀이에 대한 교사의 역할 인식과 실제 행동과의 관계. 성신연구논문집. 34. 129-151.
- 이숙재(1994). 어린이 놀이터와 놀이행동에 관한 질적인 연구. 유아교육 연구 .14 . 109 - 132.
- 이숙재(1997). 놀이의 이론과 실제 . 서울; 창지사.
- 이숙재(2003). 유치원 실외놀이장에서의 교사 개입 .성신연구논문집. 38. 215 - 233.
- 이순연(1992). 탁아기관의 시설.설비 현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외 (1995).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의 실제 . 서울 ;교육과학사.
- 이지향(2003). 만 2세 유아의 상상놀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경(2003). 걸음마기 영아의 실외놀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현순(1990). 극놀이 영역에서의 교사 개입이 유아의 놀이 지속시간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화정(2000). 실외놀이기구에 대한 유아의 선호도와 놀이기구별 유아의 놀이형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재택 외(1999). 애들아 산책가자. 서울;양서원.
- 임재택 외(2002) 선생님 바깥놀이해요. 서울;양서원.
- 임재택(2003). 가르치지 않는 교육. 서남재단 .국제유아교육 심포지엄. 112-127.
- 임혜영(1999). 1, 2세 영아의 상징놀이 발달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영희(2000). 영아교육과정. 서울 ; 양서원.
- 정은경(1999). 유치원 유아들의 실외놀이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경희(1999). 실·내외 놀이환경에 따른 유아의 놀이형태에 관한 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혜경(2003). 영아의 상징놀이 발달에 관한 구성요소별 분석 연구. 덕성 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Eisert, D. & Lamorey, S.(1996). Play as a window on child development ;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 and other developmental domain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7(3), 221 - 235.
- Erikson, E. H. (1963). 아동기와 사회. 윤진, 김인경(공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1988.
- Fein, G. G.(1981). Pretend play in childhood ; An interactive review. *Child Development*, 52, 1095 -1118.
- Fergus P. Hughes(1999). Children play and development, 김광웅의 역,(2003). 놀이와 아동발달. 서울; 시그마프레스.
- Frost, J . L. & Wortham. S.(1992). Play and Playscapes. N .Y. Delmar.
- Frost, J . L. & Wortham . S.(1997).놀이환경: 놀이환경의 중요성과 창의적인 실외환경 구성, 이은혜 역. 어린이와 환경. 삼성복지재단 국제학술대회.pp.27-55.
- Garvey(1989). 지혜련, 김판희 공역, 놀이. 서울 ; 창지사.

- Hartle .L .C(1996). *Effect of addtional materials on preschool children's outdoor play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1(1) , 68-81.
- Henniger, M. L.(1985). Preschool children.s play behaviors an indoor and outdoor envionment, In J. L. Frost & S. Sunderlin(Eds.), *When children play*(pp 145-150). Wheaton, MD; Association for children Education International.
- Honig, A. S.(1993). Mental health for babies: What do theory and research teach us? *Young Children*. V48, n3, 69-76.
- Humphryes, Janet(2000). Exploring nature with children. *Young Children* .55(3),16-20.
- Inagaki, K.(1990). The effect of raising animals on children's biological knowledge.*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 119-129
- Johnson, J. E., Christie, J. F., & Yawkey, T. D.(1999). *Play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New York ; Addision Weseley Longman, Inc.
- Kostelnik, M. J, Stein, L. C., Whiren, A. P., & Soderman, A. K. (1988).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ement*. Cinconnati, OH; south-Western
- Pellegrini, A. D. & J. C. Perlumutter(1988). Rough-and-tumble play on the elemetary school playground. *Young Children*, 43(2),14-17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M. Gabin, T rans.).N. Y.: Free Press.

- Segal, M & Don Adock(1985). *Young Child at Play: Two to Three Years*. Newmarket Press. 이은화, 임희옥(역). 놀이로 자라는 우리아이: 두 살에서 세 살까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 Shin, Dong-Ju(1994). *Preschool children's symbolic play indoors and outdo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 Sutton-Smiths(1990). *Play research; State of Art. In When Play Children*, eds by Frost, J. L. and S. Sunderlin, 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
- Tizard. B. Philips . J. & Plewis. L(1976). *Play in Preschool centers; play pleasures and their relation to age, sex, and IQ*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17 .pp .241-264.
- Van Manen, M.(1990). *체험 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 과학 연구 방법론*, 신경림, 안규남(공역).서울 동녘,1994.
- Watson, L. D., Watson, M., A., & Wilson, L., C.(1999). *Infant and Toddler Curriculum and Teaching*. 4th Ed. Delmar Publisher. N. Y.
- Walker(2003). 숲 속 유치원 - 독일에서의 한 새로운 교육학적 개념. 서남재단 .국제유아교육 심포지엄. 151-176.
- Wellhousen . K.(,2002). *Outdoor Play Everyday*. Thomson Press. 신화식 외 역 실외놀이 .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3.
- Winer, M.(1983) . *Toddler play behaviors and equipment choices in an outdoor play ground*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Wilson, R. A.(1996). The development of the ecological self.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4(2), pp.121-23.

Wittmer, D. S.(1997). The learning sparkle. *Scholastic: Early Childhood Today*, 11(8), 53-57.

Yasuhiro(2003). 자유보육이 인간의 마음을 키운다. 서남재단 . 국제유아교육 심포지엄. 211-224.

ABSTRACT

A Cultural and Technical Study on the Outdoor Play of 2-Year-Old-Babies

**Lee, Joo Eu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the deep understanding for the outdoor play of 2-year-old babies. As for this study, this researcher participated in the outdoor play to be made in the morning and afternoon and observed it intensively, except rainy day and yellow sand days, from the 2nd of March to the 8th of May in 2004 on 2-year-old-babies(7 male babies and 2 female babies) at K kindergarten to be located in Seocho-gu, Seoul. This researcher collected the onsite note obtained through observation, the photographs of significant situation, and the data related to parents interview and other study, symbolized the case of onsite note by types, and analyzed the data through relevant literature and by obtaining advice from the specialists of baby education. Subjects chosen by this method finally are as follows:

First was babies' interest about outdoor play.

Second was the choice of outdoor play equipment.

Third was exploration and play in the playground.

Fourth was nature which is babies' playground.

Fifth, cooperation with colleges through outdoor play

Sixth was the solution of trouble.

Seventh was babies' change through outdoor play.

To summarize the result obtained centering around this subject is as follows:

First, babies tried to spend much time, as they like outdoor play very much.

This researcher could see the form that they arrange fast so as to spend more time in outdoor play and the form that they train their own basic life habit like running after wearing shoes fast so as to play with the thing for play that they want.

Second, 2-year-old-babies showed much interest for automobile in the choice of play tools, at the time of outdoor play.

Third, babies played with diverse play techniques and by finding the methods to be interesting for themselves in the play domains such as see-saw, sliding frame, and sand play etc.

Fourth, 2-year-old-babies showed the both-sided features of autonomy and dependency, while they did outdoor play. While they did outdoor play, babies used play tools in their own way so as to display their own

independence and autonomy, but they showed the form to ask for help dependently, if they are in the difficult situation to be difficult to solve by themselves.

Fifth, it could be seen that the interaction of babies increased by the play tools that babies play together and the freedom of outdoor environment in outdoor play tools.

Sixth, 2-year-old-babies searched for nature objects positively and used them for play properly in outdoor play and showed curiosity and feat in animals.

It could be frequently seen that 2-year-old babies rode slipping frame by using lawn slope to be nature object and they played hide-and-seek by hiding behind trees and flowers and they played at house by using field flowers and stones.

2-year-old-babies found worms with the curiosity for worms, but they avoided or tried to kill worms as they were afraid of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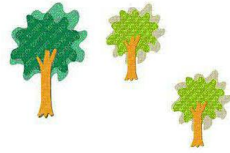
Seventh, 2-year-old male babies did rough body play, while they did outdoor play.

Eighth, babies solved negative emotion through outdoor play.

Ninth, trouble to appear in outdoor play happened because of the choice of play tools and the thing for play, and they showed the action to offer compensation or ask for help to teachers in the solution.

Tenth, babies improved prosocial behavior like improvement of exercise technique, sharing and cooperation. Being in contact with living creatures, babies learned precious value of them.

부록 . 실외놀이환경 배치도



동산 언덕

통로

소꿉집

출입구



탈것



어린이집

통로

테이블과 의자

잔디밭

모래놀이와
소품